

“동부권 산업 재편·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교육·일자리 주목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3일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동부권 타운홀미팅'을 열고 열린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행정통합에 대해 동부권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동부권 2040청년 패널 100여명과 자치행정, 교육, 산업, 복지, 농어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지역의 미래를 묻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 3사가 공동기획한 시민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 마지막 일정으로,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관했다. 조우종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이번 타운홀미팅은 17~18일 이틀간 방송됐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정치·자치행정 분야와 교육·문화예술 분야 행정통합 비전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청년과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기반을 만들고,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선택이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정부의 재정 지원은 위기 산업을 회복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쓰인다. 특히 AI영재교육과 Arm 스쿨, GCC 사관학교 등 교육 인프라를 통해 광주·전남에서 미래 산업을 책임지는 인재가 태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통합은 산업과 인재뿐 아니라 문화·생활·교통 전반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광주의 대형 복합쇼핑몰과 국립문화시설 유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광양항·무안공항·광주순정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체계를 만들고 촘촘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60분 광역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인 '5극3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순천대서 세번째 타운홀미팅... 동부권 현안·상생전략 집중 논의

“통합은 청년이탈 막기 위한 선택”... 교육·문화·교통 비전 제시

60분 광역생활권 실현... 울촌산단·균형발전기금 배분 등 쟁점



이러한 자유 질의응답에서는 ▲해상풍력 연계 등 울촌 제2산단 미래첨단 국가산단 구상 방안 ▲광양만권 산업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한 지방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 ▲균형발전기금 인구소멸위험지역 우선 배분 등 지역 발전 전략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특히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청년들은 ▲통합 이후 청년 인구를 지역 관광·창업·정착 연결구조 구축 ▲전남 동부권의 재정·산업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고, 원도심 쇠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정치적 안전장치 ▲교육특례에 예산·인력·권한 이양 등 실질적 지원을 포함해 학교 자치와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을 질문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동부권 청년세대의 시각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와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해 향후 행정통합 정책 설계 과정에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광주청년 500만원 모으면 기업·시가 500만원 더 광주시, '1000만원 목돈' 청년 일자리 공제 인기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인 직업 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 공제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참여 접수를 시작해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이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종필 기자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순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올해 노인 일자리 7만3천여명 역대 최대

3천84억 원 들여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형 등 4가지 유형

전라남도는 빈곤 해소와 건강증진·사회적 고립 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총 3천84억 원을 들여 역대 최대 규모인 7만 3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기준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28.5%를 차지해 전국 평균(21.2%)보다 7.3%포인트 높고,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수요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총 7천 341억 원을 들여 18만 9천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하는 공익활동형 ▲취약계층 대상 전문서비스를 하는 역량활용형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직접 제조·판매에 참여하는 공동체사업단형 ▲민간기업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지원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이중 공동체사업단형은 세탁사업·식당·카페 등 어르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영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어르신 참여자들에게 분배해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의 '기찬밤상'과 '기찬빨래방'은 성공적인 공동체사업단형 중 하나다. 올해 1월 그동안의 안정적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기찬밤상 2호점, 기찬빨래방 2호차량까지 확대했으며, 어르신 35명 이상이 새로 고용됐다.

영암군 공동체사업단을 총괄하는 장영범 영암군시니어클럽 관장은 “어르신들이 생애 마지막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등 누구보다도 근로 의욕과 사기가 높다”며 “경영 성과에 따른 상여금도 상한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인 기자

전남도, 조선산업 기술 고도화하고 영역 넓힌다

AI 기반 자동화 높이고 친환경선박과 수리·정비 분야 확장

구축(2024~2027·60억 원)하고 현장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또 HD현대삼호와 대불산단 기업이 참여하는 AI 기반 자율운영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정관리와 생산 운영 효율을 높인 AI 자율운영조선을 조성할 예정이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기술 축적과 사업화를 함께 추진한다. 목포에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 기반(2024~2028·200억 원)을 구축해 차세대 친환경 연료 기술의 안정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재를 활용한 소형어선 실증(2024~2027·143억 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올해 친환경에너지 운송 선박용 극저온 단열시스템 생산제조 기반 구축

(2026~2030·292억 원)과 액화이산화탄소(LCO) 독립형 탱크 자율제조·검사시스템 개발(2027~2030·150억 원) 등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핵심 기자재의 제조 경쟁력과 기술 자립 기반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말 개장하는 목포 해양경찰 정비장을 계기로 수리·정비 분야에서도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해경 합정 정비 수요를 지역과 연계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수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리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한 올해 경남,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합정 유지·정비·보수(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공모사업(2026~2030·80억 원)을 신청해 정비산업 기반 확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전남도는 조선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조선산업은 HD현대삼호, 대한조선을 중심으로 대불산단에 200여 중소기 자재업체가 집적했고 2만 5천여 명이 종사하는 서남권 핵심 산업이다. HD현대삼호와 대한조선은 2025년 국내 대·중형 조선사 중 최고 수준인 17%, 24%의 영업이익률을 기록, 전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임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미를 곡성에서